

## 理想美에 따른 女性속옷構成에 關한 研究

- 1850年-1910年을 中心으로 -

金志妍\* · 全惠晶

龍仁松潭大學 텍스타일디자인과 兼任教授\*, 서울女子大學校 衣類學科 副教授

## A Study on Women's Underwear Structures by Ideal Beauty

- Focused on period 1850 - 1910 -

Jee Yeon Kim\* and Hei Jung Chun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Textile Design, Yong-In Songdam Colleg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Women's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structure of underwear which is the closest cloth to the body. Scope of this research is from middle of 19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20th century. Firstly, I studied background of the times and change of women's status and duty. Secondly, I examined the outer garment closely by the ideal beauty of each period based on the study, and thirdly I looked into structure ways of underwear. Then lastly, I took a close look about the relation of outer garment and underwear, comparing with and researching both. I studied this research, focusing on corset, crinoline and bustle based on main characters such as reform and transform among several functions of underwear. The research results are such as follows.

First of all, when women's social and economic status was subjected to men, women had worn corset and fashionable dresses even though there was many object movements and vices in women's garment.

Secondly, according to those movements, the ideal beauty had changed little in the same sort emphasizing on breast and hip.

Thirdly, structure method of underwear changed by ideal beauty and shape of outer garment. .

Due to increasing sports participation, improvement of women's position, achievement of practical use, women used more drawers and stopped wearing hoop. And the weight of underwear like combination and suspender attached to corset had decreased and advanced into the more practical way. Because of industrialization, function seemed to be granted by technology development, social position change of femininity.

### I. 서론

우리는 복식을 보호성, 정숙성, 심미성,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측면에서 착용한다. 그러나 코르

셋과 하이힐 등은 실용적인 기능보다는, 인체에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착용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복식을 착용하는 이유를 어느 한가지에 한정지어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sup>1)</sup> 복식의 스타일은 단순히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미학이 형성된 사회환경의 한 부분이며, 그 시대의 성적 역할에 따른 입장을 정립한 이상미를 반영한다. Danielson은 인체의 이상적인 형태는 그 시대의 인체에 대한 미의식과 유행 복식의 실루엣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Jennifer는 사회적인 성(gender)의 정의가 변할 때, 이상적인 여성의 형태가 바뀐다고 보았으며,<sup>2)</sup> Riley는 당대의 유행하는 실루엣을 강화하기 위해 코르셋과 같은 고안물로 인체를 재구성한 방법으로 패션을 논의하였다.<sup>3)</sup> 즉, 인체의 이상미는 시대에 따라 바뀌며, 그 형태를 나타내기 위한 겉옷의 실루엣은 속옷의 교정(reform)과 변형(transform)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시대의 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상황, 이상적인 인체미를 파악하고 각 시대의 양식 변화를 이루는 속옷 형태를 분석하여, 어떻게 그 외형이 형성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속옷은 다양한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 인체의 부위를 조작하여 시대에 따라 독특한 의복양식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기적으로 재현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는 속옷의 종류에 대한 연구일 뿐이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범위는 남·여성의 성 역할과 유행 복식의 큰 차이가 드러나는 분기점이 된 19세기 중반부터<sup>4)</sup> 20세기초까지 두고, 연구 방법은 이상미의 변화에 따른 겉옷의 변화와 이에 따른 속옷의 구조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각종 문헌 자료, 도판, 사진 등을 통해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상미에 따른 형태를 구축하기 위해 복식의 형태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각 실루엣에 따른 속옷을 분석하고 그 구성 방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시대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역할 변화를 고찰한 후 둘째, 이를 바탕으로 각 시대에서 이상미에 따른 복식형태를 살펴보고 셋째, 이를 표현하기 위한 속옷의 구성방법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비교·고찰함으로써 겉옷과 속옷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시대적 배경과 여성의 역할

산업혁명에 따라 무역업과 제조업에서 부(富)를 얻은 새로운 계급인 중산층이 생기고, 남성과 여성의 복식에 다른 영향을 미쳤다. 남성의 복식은 간단해지고 실용적인 반면, 여성의 복식은 더욱 장식적이고 색상이 다채로워지고 복잡해졌다.

즉, 새로운 성 역할에 따라 1830년대부터 남성과 여성의 복식이 확실히 분리되었다. 중산층 남성들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복식이 필요하였고, 얻어진 지위에 대한 '재산'을 여성의 복식으로 표현했으므로 부(富)의 과시에 대한 부담으로 간소한 복식을 입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여성들은 '무위(無爲)와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그들의 복식은 남편의 부(富)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었고, 남편의 출세를 위한 유행 복식이 필요하였으며, 일하는 남편 복식의 수수함에 대한 보상 심리로 더욱 화려함에 치중하였다. Veblen은 'Conspicuous consumption and conspicuous leisure'에서 '사치스런 옷의 착용자는 돈을 벌지 않음을 의미한다'고도 하였다.

강한 남성에 대조적으로 성적인 파트너로서 때묻지 않은 흰 솜(cotton), 과일, 꽃 등은 여성을 나타내었고,<sup>5)</sup> 그들은 남성보다 열등함을 인식하고 남성들을 기쁘게 해주어야 하며, 수동적이며 순수하고 가정적이고 우미한 여성이 존경받았다. 즉, 여성의 정숙성은 남성들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구속과 도덕적인 태도, 남편에게 종속된 생활은 '더 인형 같고, 연약하며, 머리가 더 비고 쓸모없는' 지루한 여유를 보여주었으며, 코르셋과 유행 복식-거대한 스커트, 큰 망토, 하이힐-은 이것에 기여하였다. 이 때부터 여성은 장식적인 성(性)으로서 간주되었고, 번덕스러운 패션을 일삼았다.<sup>6)</sup>

상류층 역시 값비싼 복식을 포함한 소유물,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었다. 크리놀린의 크기와 드레스 디자인의 완벽성에 따라 사회계층을 나타내었고, 크리놀린이 없이는 존경받을 수 없었다.<sup>7)</sup>

1860년 대 복식의 비도덕성에서 다음과 같은 논쟁이 있었다: "무모한 아날린 염색과 드레스를 지지하기 위한 크리놀린의 천박성, 파티를 자주 가는 고급 매춘

부와 개성 없는 여성들의 스타일을 향한 백화점의 무  
기력한 분위기... 그러나, 복식의 기본구조에 대한 기사  
와 그림은 여전히 존경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었다.”<sup>8)</sup>  
여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도덕성, 정숙성 때문에 괴  
로웠으며, 이것이 부과됨에 따라 구속적이고 존경받는  
여성다운 이미지와 장식적이고 정교한 속옷은 대조를  
이루었다. 즉, 존경받는 공적인 체면과 사적인 즐거움  
은 ‘이중적인 얼굴’을 지녔다.<sup>9)</sup> 이것은 Laver가 말한  
“여성의 복식은 ‘성적인 유혹을 꺾기’ 위해 인체를 덮  
도록 기대되어지지만, 그들은 매혹적인 차림새를 함으  
로써 정숙성을 어긴다.”와 의미가 통하기도 한다.<sup>10)</sup>

또한 복식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재봉  
틀의 발명으로 이로 인해 손으로 만들기 힘든 많은 주  
름과 장식이 달린 드레스가 선보였으며, 대량 생산과  
기성복의 생산에까지 이르렀고<sup>11)</sup> 편물과 레이스 산업  
도 발전하였다.

1848년에는 여성의 해방을 향한 첫걸음이 시작되었  
다.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참정권 요구가 있었으며, 영  
국의 블루머 부인은 여성들의 비활동적인 복장의 개  
선을 주장하여 바지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소  
수 진보적인 여성들의 찬성을 얻은 것으로 블루머 바  
지가 자전거용으로 채택될 때까지 50년을 기다려야  
했다.<sup>12)</sup> Cunnington은 19세기 속옷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사회적·경제적 변화나 건강 개혁이 아닌, 자  
전거로 보고 있으며,<sup>13)</sup> 자전거는 ‘니커 보커, 블루머’  
로 사회적 해방과 복식의 자유를 의미하였다.

1870년의 보불 전쟁과 제국주의, 자본주의, 자연주  
의와 더불어 복식은 실용적인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풍요롭고 사치스러웠다.  
교육받은 여성들의 거부, 넓은 스커트에 대한 여성들  
의 싫증, 차를 탈 때나 불이 났을 때 위험성 등은 크  
리놀린을 사라지게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체의 선을  
따르는 단순한 형태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여성들로  
인해 거대한 크리놀린 대신 힙 뒤로 작게 뭉쳐낸 것  
같은 벅슬이 나왔다.<sup>14)</sup> 벅슬의 사회적인 목적은 단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의 인상을 주기 위  
한 것이었으며, 얇기도 걸기도 힘들었다. 역시 이것은  
남편의 지위를 상징했으며, 남녀 평등의 원칙은 완전  
히 수용되지 않았기에 실제보다는 이론으로 존재했

다.<sup>15)</sup> 이 시기의 산업의 발전은 합성섬유와 인조섬유,  
인공 염료의 발명으로 제 2차 산업혁명이라 불릴 정  
도로 다양한 복식의 종류와 색채를 보급했다.

1850년대부터 중산층의 여성에게 교육이 주어졌지  
만, 바느질, 그림, 가무(歌舞)와 같은 여성스러운 기술  
이었고, 그들이 학문적인 교육을 받으려면 공적인 시  
험을 통과해야 했다. 잡지는 초기에는 도덕성과 미덕  
에 관련된 여성성만을 강조하였으나,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안 경영, 문학 비판, 美 등을 강조하였으며,  
중산층과 노동자층 여성들을 위한 잡지도 생겨났다.

1870년에는 드디어 여성의 소득에 대한 소유권이  
법률로 통과되었으며, 1888년과 1893년에 제한된 지역  
선거를 통해 작은 선거권을 얻었으며, 1903년에는 여  
성의 사회적·정치적 연합이 설립되는 등 19세기 후  
반부터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가 나아지고 있었다. 그  
러나 여성들의 일할 기회는 넓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몇가지-의약업,교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층은 것  
이었다.

1890년대, 벨 에포크와 아르누보 시대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인해 복식이 간소해지긴 했지만, 색채, 소  
재, 형태에서 여전히 화려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위치  
를 표출했다. 이 시기의 복식을 반대하는 유미주의와  
이성주의 복식(Rational Dress)운동은, 당시 유행의 끝  
불견에 항의하는 의미로 제창되어 혈령하고 풍성한  
소매와 코르셋을 입지 않았고, 뒷굽 없는 구두와 정리  
되지 않은 헤어스타일을 하였다. 또한 1880년대 초부  
터 여성 건강개혁에 대한 방안(anti-corset)으로 breast  
supporter가 개발되고 특허를 받기도 했다.<sup>16)</sup> 에드워드  
시대(20세기 초~1차 세계 대전 이전)의 복식은 오늘  
날보다 더욱 사회적인 심벌로 작용하였고, 상류층은  
무도회, 연회, 원행(遠行)의 파티의 연속, 허식과 낭비  
가 만연했다. 이렇게 장식적이고 화려한 복식이 유행  
하는 한편, 실용적인 옷의 필요로 ‘tailor-made’도 유행  
했다. Tailor-made는 ‘니커보커, 블루머’로 시작해서  
1860대의 ‘walking costume’, 1880년대의 ‘tennis  
costume’으로 서서히 발전하였으며, 남성들과 동등해  
지려는 여성의 입장에 영향을 안준 것은 아니지만, 여  
성복은 여전히 허리는 타이트하고 스커트는 길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활동적인 스타일과 옛 스타일의 공

존으로 겹옷·속옷 모두 두 종류의 스타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sup>17)</sup>

결론적으로, 여성복식에 대한 많은 반대 운동과 폐단에도 불구하고, 코르셋이나 유행 복식이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온 것은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관계가 깊다. 남편에게 종속된 생활과 정숙성은 더욱 장식적이고 정교한 속옷으로 '이중성'을 지니게 했다. 동시에 이러한 복식을 반대하는 유타주의 복식운동과 이성주의 복식운동, 여성들의 교육 증가와 고용, 스포츠, 사회적 권리 등은 여성들의 해방에 첫발을 내딛게 했고 복식을 간소하게 했지만 여전히 여성복의 허리는 가늘고 스커트는 길었다. 또한, 중산층 여성에 대한 교육과 고용이 있다 해도 오로지 미혼 여성이었고, 단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층이었으며, 상류층과 중상층(upper-middle) 여성들은 별 노력 없이 쉽게 지위를 얻었다.<sup>18)</sup> 즉, 세기의 전환점에서 여성의 해방과 의복 개혁에 대한 시도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 III. 시대적 이상미에 따른 복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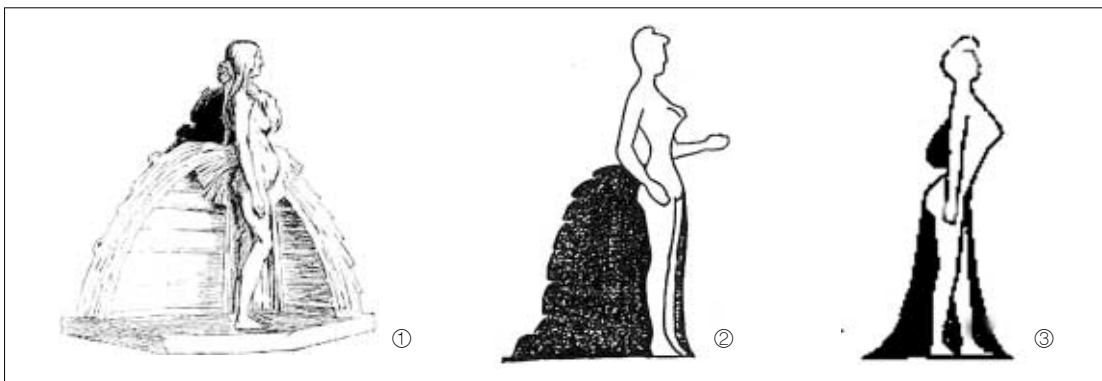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시대적인 이상미와 이를 나타내기 위한 실루엣의 형태구축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첫단계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부위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상미를 크리놀린 시대, 벅슬 시대, S자형 시대로 구분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가슴과 힘을 강조하는 이상미는 같은 종류로 약간 변형만 가졌다.<sup>19)</sup>

크리놀린 시대(1850-1870)의 이상미는 에로틱한 여성이다. 전시대의 Hourglass형이 더욱 심해져 풍만한 가슴과 거대한 힘, 가는 허리에 작은 배꼽, 길지 않은 상체로 'Pear shape'형의 향기 나는 듯한 여성이 이상적이었다. 따라서, 이 이상미를 지니기 위한 크리놀린 스타일은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를 코르셋으로 조절하고, 스커트는 크리놀린과 페티코트의 착용으로 최대한 부풀리는 것이었다. 스커트는 1850년대는 돔형(dome)이었지만, 1860년대 초에는 앞이 납작하고 뒤가 퍼진 깔대기형(funnel)의 고어스커트로 바뀌었다. 프린트와 염색산업, 특히 아날린 염료의 발달로 다양한 색채가 선보였으며, 소재는 cotton, alpaca(모), velvet, lace가 많이 사용되었다.<그림 1, ①>

벅슬 시대(1870-1890)의 모든 흥미는 스커트 뒤에 있었다. 큐래스 바디스(cuirasse bodice)가 나옴에 따라 상체는 더욱 길고 타이트해졌으며, 과장되게 부풀린 힘, 벅슬 장식을 위한 넓은 뒷모습의 루벤스(Rubens) 타입이 이상적이었다.<sup>20)</sup> 단순하고 타이트한 바디스와 복잡한 스커트가 이 시기의 특징으로, 상체는 신축성 있는 소재와 타이트 레이싱(tight-lacing)으로 더욱 즐라



<그림 1> ① 크리놀린시대, G. Néeret, 「1000 Dessous, A History of Lingerie」, 1998, p.51.  
 ② 벅슬시대, R. Broby-Johansen, 「Body & Clothes」, 1968, p.197.  
 ③ S자형시대, R. Broby-Johansen, 「Body & Clothes」, 1968, p.207.

매었고, 스커트는 벗슬로 힙 뒤를 부풀렸다. 초기에는 스커트 단이 넓고 뒤로 트레인이 길게 퍼진 스타일이었고, 1880년대에는 트레인이 사라지고 힙이 90°가 될 정도로 돌출되었다.<그림 1, ㉔>

S자형 시대(1890-1910)에는 전 시대의 관심의 초점이었던 힙이 가슴으로 돌아왔다. 이 때는 가슴이 성숙한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으로, 앞으로 기울어진 하나의 가슴(mono-bosom)과 좁고 돌출된 하나의 힙(mono-buttock)은 S자형으로 균형을 이루었다.<sup>21)</sup> 이 이상미를 위해 가슴에 bust improver를 대고, 코르셋은 복부를 압박하여 배를 납작하게 하였으며, 힙에는 작은 패드를 대기도 하였다. 스커트는 고어 혹은 플레어로 종형(bell-shape)이었고, 레이스가 대유행하여 레이스가 달리지 않은 옷이 없을 정도였으며, 이 시기의 파스텔조 색채, 형태나 소재의 유기적인 곡선이나 형상, 꽃무늬 패턴은 아르누보의 영향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㉕>

#### IV. 속옷의 종류 및 구성 방법

속옷은 그 기능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sup>22)</sup>

첫째,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것(practical)으로 shift(슈미즈), shirts, drawers, knickers, bloomers, panties, combinations 등이 이에 속하며, 체온유지와 보호, 위생적인 목적으로 쓰인다.

둘째, 인체의 형태를 재구축하는 것(reform)으로 body shapers라 부른다. Brassieres, corsets, foundations 등이 속하며, 몸을 압박함으로써 재분배, 축소, 확대시킨다.

셋째,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를 변형을 시키는 것(transform)으로 정상적인 인체와 연관이 없다. Farthingale, hoop(crinoline), bustle, padding등이 이에 속하며, 인체의 윤곽을 패러디하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과시와 지위 같은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넷째, 심미적인 감각이 있는 것(aesthetic)으로 속옷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매우 장식적이며, 레이스와 리본으로 장식한 'tea gown' 이 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대표적 특징인 재구성(reform)과 변형(transform)에 기본을 두어, 인체를 축소·확대·변형시킨 코르셋과 스커트 부풀림(크리놀린, 벗슬, 페티코트)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크리놀린 시대(1850년-1870년)

##### 1) 코르셋 구성방법

1856년 'R & W H Symington & Company'는 공장에서 만든 코르셋을 처음 선보였다. 게다가 1851년 재봉틀의 발전은 모든 중요한 스티치를 가능하게 하여 corset, stay bands, bust improvers를 포함한 corsetry는 1,300여종 이상이었다.<sup>23)</sup>

코르셋과 크리놀린은 B.C.2000년 크레타시대부터<sup>24)</sup> 형태와 구조의 변화를 지속하였다. 특히 Victorian과 Edwardian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속옷은 코르셋으로, 여성들은 코르셋을 안 입으면 비정상적인 여성으로 여겨졌다. 여성들은 코르셋을 착용함으로써 외적으로는 원하는 형태를 나타낼 수 있었고, 내적으로는 억압된 관능성을 표출할 수 있었다. Shorter는 귀족과 중상층 여성들이 코르셋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Kunzle은 중하층, 일하는 여성, 특히 매춘부들이 주로 코르셋을 착용했다고 주장한다.<sup>25)</sup> 크리놀린 시기의 코르셋은 스커트의 넓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게 보였으며, 허리를 졸라매는 tight-lacing이 있었지만 덜 극단적이었다. 1857년 C.Dubois는 그 시대의 5가지 재양에 코르셋을 포함시켰고, 어떤 의사들은 불임, 갈비뼈와 척추의 변형, 호흡 곤란 등을 설명하며 코르셋의 위험성을 상기시켰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여성들은 주로 면이나 린넨으로 된 슈미즈(chemise)와 드로오즈(drawers)를 입은 후, 그 위에 페티코트와 코르셋을 입었다.<sup>26)</sup> 이 시대의 코르셋은 인체에 타이트하게 맞고 뼈대를 대었다. 거셋(gussets)을 넣어 가슴을 지지하고 힙의 곡선을 만들어 내었으며(그림 3), 1850년대에는 한 조각에 여러 거셋을 넣는 것 보다, 여러 조각을 합쳐 인체에 맞게 채단하는 것과 cording과 quilting(누빔)이 유행하였다. Facing cloth, interlining, lining을 같이 바느질하는 cording은 새로운 디자인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으며, 견고성과 인체의 지지 뿐 아니라 값비싼 고래수염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1855년에는 어깨끈 없는 코르셋이 고안되었으며, 버클로 된 버스크(가슴부분을 버티는 것)가 소개된 뒤로 코르셋의 스타일이 변화되어 앞에서 여미고 뒤에서 끈으로 조여 허리를 졸라매는 것이 더욱 가능해졌다. 1860년대 후반, 증기 틀(steam-mould)에서 원하는 코르셋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법이 소개되었다. 즉, 버스크와 뼈대가 함께 바느질 된 코르셋에 풀을 먹이고, 인체형태의 구리(hollow copper)에서 증기로 말려 뻗뻗하게 하여 형태를 고정시켰다.

색채는 흰색이 가장 우아하였으며, 회색, 빨강, 검정도 실용적인 이유로 쓰였다. 소재는 cotton이 가장 많이 쓰였고 jean, leather, silk등도 쓰였으며, 버스크를 덮는 것은 부드러운 가죽(wash-leather)이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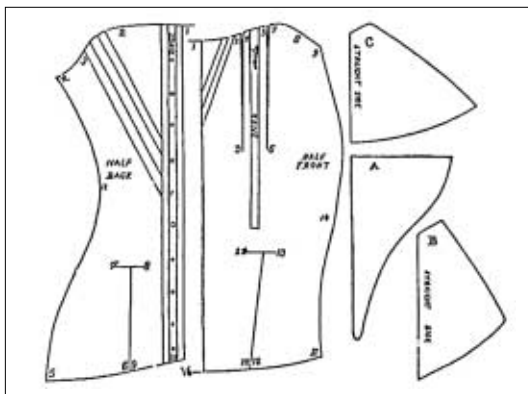
다음은 거셋을 넣은 코르셋의 패턴구성방법과 봉제 기법이다.

Back(왼쪽 패턴)의 No.6-9에는 힙 거셋을 넣고, front의 No.2-6에는 가슴 거셋(오른쪽 패턴 상단)을 넣으며, No.12-15(오른쪽 패턴 하단)에는 복부 거셋(stomach gore)을 대준다. 앞선은 back의 No.11과 front의 No.10이 만나도록 한다. Back의 뒷중심에는 두 개의 뼈대를 넣어 지탱하고 front의 가슴부분에 작은 뼈대를 넣어 준다. 뒷중심에 뼈대를 관통하여 구멍(hole)을 내어 실크끈으로 졸라매 수 있도록 하고, 앞중심에 버스크를

넣는다.(그림 2) 이 시대의 풍만한 가슴을 강조하기 위해 인공 보조물(인공가슴)을 코르셋 안에 넣었다. 1860년 '인공 가슴(artificial bust)'에 대한 특허가 있었고, 뒤이어 다양한 스타일과 사이즈의 'bust pad', 셀룰로이드와 고무로 된 'bust shape', 'lemon bosom' 등이 있었다.

## 2) 크리놀린 구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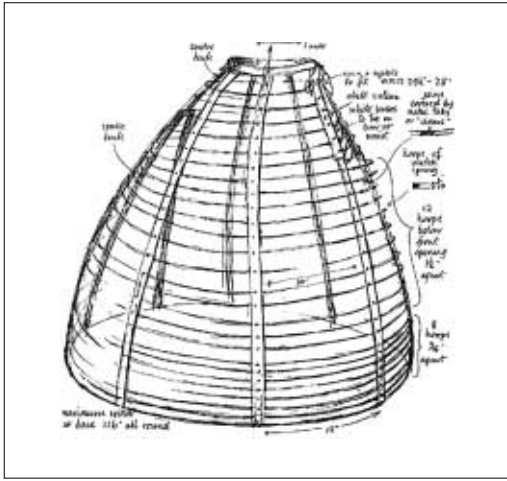
크리놀린이란 언급은 1840년부터 있었으나 이것은 뽕뽕한 말총(horse hair)으로 선을 댄 페티코트의 잘못된 말이며, 분리된 철제 새장형의 크리놀린(metal cage crinoline)은 1856년에 소개되었다.<sup>27)</sup> 크리놀린은 영국의 크리스탈 궁전에서 개최된 대박람회 후에 생겼는데, 그 반구형(dome)의 형태가 크리스탈 궁전과 흡사하다. 이것은 무겁고 뽕뽕한 여러 개의 페티코트를 하나의 가벼운 크리놀린으로 대체하여 가벼웠고, 패셔너블한 여성들은 매우 기뻐하며 이것을 받아들였으며, 무거운 페티코트에 의한 방해 없이 두 다리의 자유를 얻었다. 크리놀린은 유연한 강철 후프(steel hoop)로 만들어져 조금이라도 누르면 금방 한쪽이 올라갔으며, 좌우로 흔들리는 새로운 효과로 남성들을 유혹하였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남성들은 스커트가 들어올려질 때 보이는 여성의 발목에 복잡한 감정을 품었을 것이며,<sup>28)</sup> 이 교묘한 고안물 역시 여성의 정숙성을 어기는 것이었다. 크리놀린은 스커트 형태에 따



<그림 2> 1850년대 코르셋 패턴  
R.Doyle, 「Waisted Efforts」, 1997. p.115.



<그림 3> 1850년대 코르셋  
E.Ewing, 「Dress & Undress」, 1978, p. 74.



〈그림 4〉 1860년대 크리놀린, N.Bradsfield, 「Costume in Detail」, 1983. p.202.

라 달라졌다. 1850년대 스커트가 반원형(dome)일 때는 크리놀린도 반원형이고, 1860년대 초에 앞이 편평하고 뒤가 퍼진 깔때기형(funnel)일 때는 크리놀린도 깔 때 기형이었다. 크리놀린의 구성방법은 강철로 된 후프가 층층이 있고 그것을 세로로 끈(brass eyelet)으로 고정 시켜준다. 후프는 day dress용은 9개 정도이고 evening dress용은 18개 이상이 되기도 한다. 트임은 후프의 앞 중심 힙선부터 허리까지 트여있고 그 부분을 끈으로 즐라 매어 훅(hook)과 아일릿(eyelet)이 달린 허리밴드로 고정시킨다. 각 후프는 금속 탭이나 갈고리로 연결 시킨다. 소재는 고래뼈(whalebone), 철사(wire), watch-spring hoop (1/10" 두께)이며, 밑단에 천(frill)이 달리거나 달리지 않은 것도 있다.<sup>29)</sup>(그림 4) 'Sanflectum'의 크리놀린 후프는 고무로 덮여 있어 세탁가능 했고 비 오는 날에 좋았으며, 후에는 수축 가능한 것도 나왔다. 1856년의 아닐린 염료의 발달로 컬러 페티코트가 유행 했고, purple, scarlet, magenta와 같은 밝은 색상이 사용되었다.

## 2. 벗슬 시대(1870년-1890년)

### 1) 코르셋 구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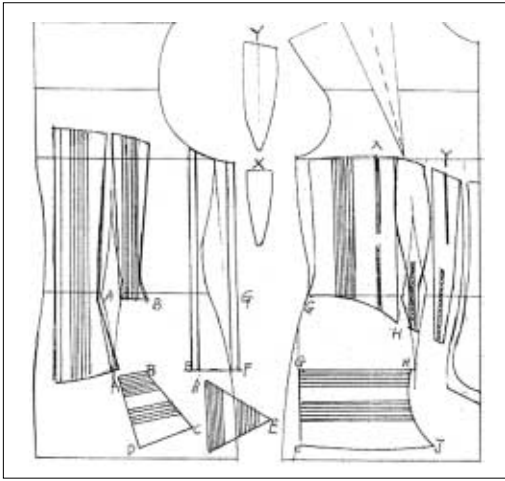
이 시기의 코르셋은 잔혹하고 극에 달했다.

1870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코르셋이 가슴을 받쳐주고 변형된 복부로부터 내장을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 즉, 코르셋 덕분에 내장들이 안전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밤에도 코르셋을 착용하였고, 아주 어린 소녀에게도 자세를 바르게 해 준다는 이유로 코르셋을 입혔다. A.Silvestre는 코르셋을 '갈힌자의 기쁨' 내지 '고통을 주는 우아한 기구'로 간주했다.<sup>30)</sup>

1860년대 말 크리놀린이 사라지면서 'tight-lacing'이 유행하여 17인치-21인치의 가는 허리가 유행이었으며, 심지어 14인치-15인치의 가늘고 잘룩한 허리가 이상적이었다. 여성들은 억압된 관능성에 대한 표출과 tight-lacing에 관련된 희열로 불편함, 신체의 변형, 부작용과 영원한 장애 등의 고통을 견뎠다. 그러나 A.Carter와 V.Steel은 실제 여성들의 허리는 그렇게 작지 않았으며, 가는 허리를 만들기 위해 늑골을 제거했다는 것은 신화라고 주장한다.<sup>31)</sup> 당시 복식에 관한 여러 반대 운동이 있었다; O.Wild는 드레스 개혁은 종교개혁보다 중요하다고까지 했으며, 이성주의 복식운동(Rational Dress Society)은 슈즈를 제외한 속옷의 무게는 7lb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sup>32)</sup> 또한 1863년에 첫 특허는 있었고, 코르셋에 대한 반대운동(anti-corset)으로 breast supporter가 1880년대 이후 계속 특허를 받아 코르셋으로 인한 압박완화와 척추만곡에 대한 자세교정 등 여성의 건강을 주장하기도 했다.

19세기 후반 코르셋의 종류는 다양했다. 결혼식 때 입는 코르셋, 살짝 뼈대를 댄 모닝 코르셋, 댄싱 코르셋, 힙에 탄력 있는 승마용 코르셋, 뼈대를 안댄 해안용 코르셋, 수유시 가슴을 열 수 있는 코르셋 등 모든 경우에 따른 코르셋이 있었다. 또한 정교한 공정 과정을 거쳐 환기를 통하게 하거나, 향기가 나는 코르셋도 있었다. 코르셋 위에는 목둘레에 레이스 장식된 코르셋 커버를 입었다.<sup>33)</sup>

1870년대 코르셋의 뾰뚱한 버스크는 더 심해지고, 1875년까지의 코르셋은 비교적 짧았다. 1876년 긴 큐래스 바디스(cuirasse)가 유행함에 따라 긴 앞여밈의 'swan-bill' 코르셋이 나왔다.<sup>34)</sup> 이것은 가슴에서 힘까지 인체의 곡선을 타이트하게 맞추기 위해 수많은 패턴조각과 notch가 필요하기도 했으며 tight-lacing이 극치를 이루었다.(그림 6) 코르셋이 너무 타이트해서 구



<그림 5> 1870년대 코르셋 패턴  
R.Doyle, 『Waisted Efforts』, 1997, p.142.



<그림 6> 코르셋 뒤에 매단 skirt holder  
R.Doyle, 『Waisted Efforts』, 1997, p.123.

부릴 수 없을 정도였는데 1878년 서스펜더(suspender)가 멜빵형 혹은 벨트형으로 코르셋 위에 입혀져, 가터(garter)를 대신하고 스타킹의 흘러내림은 방지했지만 인체의 조임은 더했다. 1901년이 되어서야 코르셋에 부착된 서스펜더가 나왔다(그림 10). 1880년대에 코르셋은 더 길어지고 뼈대를 제자리에 유지시키기 위해 자수를 놓기도 하였으며, 가장자리는 새틴과 레이스로 처리하였다.

전 시대의 cording은 더욱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되었는데, string cording (Interlining은 생략하고 대마로 끈 실을 넣어 박음)은 유연성, 내구성, 힘까지의 곡선을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코르셋을 만들 수 있었다. Cane(등나무 줄기) cording은 8줄까지 한번에 박을 수 있고 유연하였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뼈대를 넣는 boning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몇 년 후에 강철(steel)소재가 나온 후에 이러한 소재들이 대체되었다. Boning의 주재료는 200년이 넘게 고래수염이었으나 이것은 많은 양을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1875년의 American buffalo에서 나온 뿔(horn)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갈대(reed)는 바늘이 부러지지 않고 기계 스티치까지 가능하게 했으며,<sup>35)</sup> 견고한 깃뼈(feather bone)가 선호되었다. 코르셋의 소재는 jean, coutil, muslin, wool, silk elastic, sateen, brocade 등이

주로 쓰였으며, 대부분의 코르셋은 흰색, 호박색(drab)이었으나, 회색, 검정색, 금색, 블루, 빨간색도 인기 있었다.

다음은 코르셋 패턴 구성방법이다.

가슴선에 거셋(x, y)을 넣어 가슴의 둥근형을 나타내 주어 상대적으로 잘록한 허리를 강조해주었고 힘부분의 cording은 힘 곡선을 강화시켜 주었다. 또한 패턴 제도시부터 뒷중심은 맞닿지 않게 하고 뒷몸판에 공간을 두어, 인체 치수보다 작게 패턴을 그려 tight-lacing으로 졸라매어 허리치수를 감소시켰다. 복부에 작은 뼈대를 여러개 대고, 새로 개발된 곡선의 '스폰형 버스크'로 복부를 압박하여 복부를 지지했다(그림 5).<sup>36)</sup> 또한 이상미의 표현을 위해 코르셋 뒤에 반달형의 skirt holder를 매달아 스커트를 힘 뒤로 부풀렸다(그림 6). 인공 유방(artificial breast)도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양가죽, 새틴, 인디안 고무 소재로 다분히 페티쉬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sup>37)</sup>

1870년대 중반 이후, 큐래스 바디스에 맞춰 드로오즈 역시 부피감이 줄고 허리선이 납작한 선을 유지했으며, 1877년 드로오즈와 슈미즈를 합친 콤비네이션이라는 새로운 속옷이 나타나 속옷의 부피감을 더욱 줄이고 당시의 요구되는 인체에 밀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었다.



1880년대에 세탁 가능한 고급 실크가 유행했고, wool로 된 속옷이 가장 건강에 좋다는 불편한 이론이 있었다. 1880년대, 90년대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인조섬유가 발전할 때까지 'Wool next to the skin'은 하나의 커다란 법칙이었고 상류 사회에서 점점 절대적이 되었다. 건강 소재에 대한 인기로 1888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Aertex가 개발되었으며, 울과 면 혼방인 Viyella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잇점이 있었고, 이 때부터 20세기 속옷 산업이 강하게 기성복으로 전환하면서 단순히 소재를 팔던 것에서 제품을 파는 것으로 바뀌었다.<sup>39)</sup>

## 2) 벅슬 구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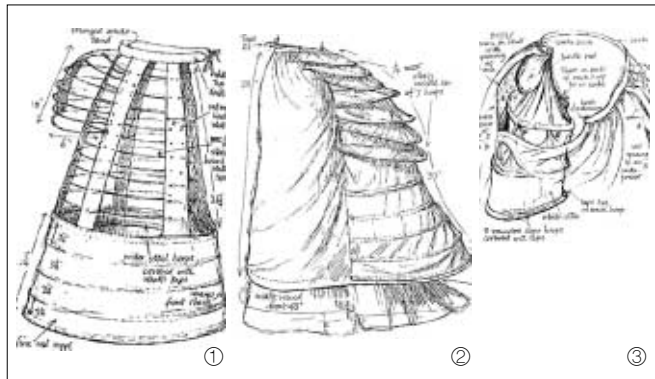
초기의 벅슬(bustle, tournure·佛) 스타일은 스커트 뒤를 부풀리기 위해 ① hoop가 뒤에만 있는 'half hoop steel'의 크리놀렛(crinolette)을 입거나(그림 7, 左), ② 힙 부분에 watch-spring hoop가 돌출되어 달린 면-크리놀렛을 입거나(그림 7, 右) ③ 스커트 뒤에 후프와 패드를 매달기도 하였다. ①은 허리 밴드에 eyelet을 넣어 끈으로 졸라매었고, 앞중심선에 단추를 일렬로 매달아 트임을 주었다. 또한 힙부분의 후프를 팽팽하게 부풀리기 위해 안쪽에서 후프 양쪽에 끈을 매어 힙 위에서 당겨주었다. ②는 허리밴드에 끈을 붙여 앞에서 졸라매고 허리선에서 21" 아래까지 앞부

분이 트여 있으며, 뒤 후프는 힙에서 6" 정도가 돌출된다. 트레인이 달린 스커트일 경우 입었고 앞부분은 면(cotton)이다. ③의 후프는 ①과 같은 방법으로 부풀린다.<sup>39)</sup> ④ 그 이외에 스커트 홀더(skirt holder)로 스커트를 부풀리는 것이 유행한 패션이었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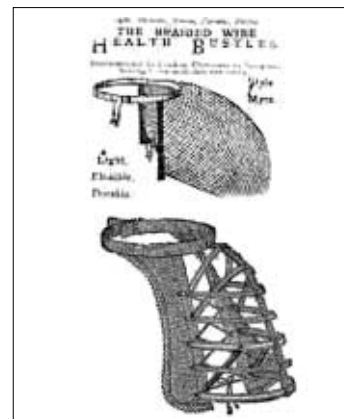
벅슬은 좁아지고 길어지다가 1876년 사라지고 1882년 재등장했을 때 더욱 과장된 형태로 되돌아왔다. 플라운스된 페티코트를 입고 그 위에 고래수염, 강철, 등나무 줄기로 만든 바스켓(basket)이란 틀을 입어 힘의 돌출이 수직에 이를 정도였으며, 벅슬의 돌출부위 둘레는 27"나 되었다.

벅슬이 부활했을 때, 그 구조는 1870년대 초에 말총으로 만든 것과 달랐다. '과학적인 벅슬', 등뼈에 악영향이 없다고 선전하는 '건강 벅슬(Health Bustle)'(그림 8, 上), 입고 앉으면 위로 올라가고, 서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랑그트리(Langtry) 벅슬'은 패션역사상 희귀한 발명이었다(그림 8, 下).<sup>40)</sup>

1880년부터 20년간 페티코트의 정교함은 끝이 없었다. 말총이나 튼튼한 면모교직물의 플라운스로 천에 뽀뽀하게 폼을 먹이고, 힘을 부풀리기 위해 깊게 주름을 잡았으며, 프릴을 포함한 주요 시접은 손바느질하였다. 트레인을 단 페티코트, 보온을 위해 킬팅한 페티코트, 캐미솔 혹은 바디스를 결합한 페티코트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소재는 linen, cotton, satin, taffeta,



<그림 7> 1870년대 벅슬, N.Bradfield, 「Costume in Detail」, 1983. ① p.233, ② p.234, ③ p.230.



<그림 8> 1880년대 벅슬 J.Laver, 「Costume & Fashion」, 1995. p.201.

fannel 등이 쓰였으며, pink, purple등의 색채가 인기 있었다.

### 3. S자형 시대(1890년-1910년)

#### 1) 코르셋 구성방법

19세기 말, 코르셋에 대한 의사들의 공격에 대항해 '건강 코르셋(Health Corset)' 이 나왔다. 이 코르셋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제작되어 코르셋 발침대인 고래뼈가 움직임과 호흡을 제한하지 않으며, 인체미를 최대한 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슴과 복부를 똑바로 하기 위해 댄 버스쿠(straight-fronted busk)와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힘을 뒤로 내민 새로운 스트레이트 버스쿠(new straight busk)는 S자형으로 인체를 변형시켜 척추만곡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그림 10)

이에 인체압박을 덜 하는 코르셋 대체물(brest supporter)이 지난 시기에 이어 연이어 특허를 받고 소재 또한 신축성 있는 유연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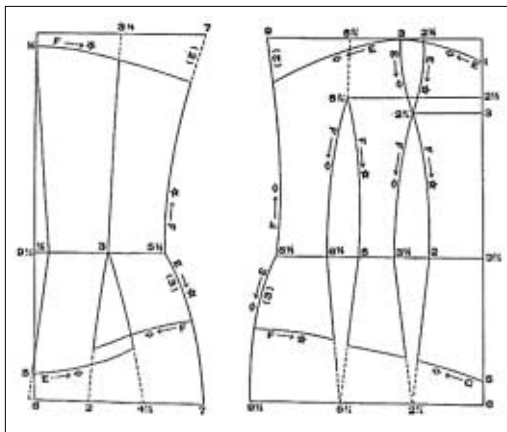
다음은 코르셋의 패턴구성방법과 봉제 기법이다. 특이한 점은 가슴위로 3"길이의 다트를 넣어 가슴의 곡선을 잘 나타내었으며, 뒷중심의 허리에서 1/2" 들어가고 허리에서 6" 내려간 선에서 1/4" 밖으로 나온점을 연결시켜 뒷몸의 곡선도 잘 나타내었다. 뒷판은 균등하

게 2부분이지만 사이즈가 클 경우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코르셋의 앞 뒤 길이는 같다.(그림 9) 거셋을 대는 코르셋의 경우, 거셋을 바이어스로 대었다. 이 시대 코르셋의 특징은 레이스와 리본으로 윗단과 아랫단을 장식했고, 시대가 진행될수록 코르셋 윗부분이 짧아져 가슴에는 bust improver를 대었으며(후에 브래지어 필요하게 됨), bust bodice를 코르셋 위에 입었다. 1887년 철사로 컵 모양을 만든 'bust improver'는 1890년 유연성 있는 셀룰로이드로 만들어지고 패드가 넣어졌다. 1889년 소개된 끈과 뼈대(bone)를 댄 'bust bodice'는 코르셋 위에 입어 가슴을 지지하였고, 하나의 가슴(mono-bosom)을 만드는데 효과적이었으며, 가슴사이의 골을 찾아볼 수 없었다(그림 10).

1890년대에는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스틸(flat stainless steel)을 넣은 코르셋이 개발되었고, sateen, batiste, silk jersey등 신축성 있고 부드러운 소재가 인기를 얻었으며, coutil, jean은 꾸준히 쓰였다. 색채는 벗슬 시대와 마찬가지로 흰색, 황갈색이 가장 많이 쓰였고, 검정, 회색도 인기 있었으며, 핑크, 블루 등도 쓰였다.

#### 2) 페티코트 구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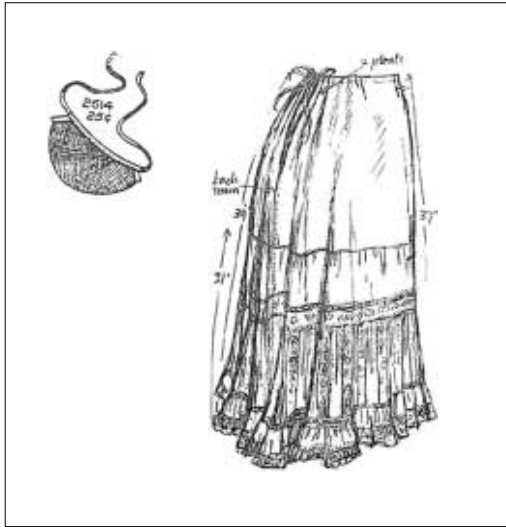
이 시기는 속옷의 절정기로 볼 수 있으며, 레이스



<그림 9> 1890년대 코르셋 패턴  
R.L.SHEP, 「CORSETS」, p.104.



<그림 10> 코르셋 위에 착용한 bust bodice, 코르셋에 부착된 suspender  
R.Doyle, 「Waisted Efforts」, 1997, p178.






<그림 11> 1900년대 패드와 페티코트, N.Bradfield, 『Costume in Detail』, 1983, p.310.

자수가 바닥까지 소용돌이쳤다. 또한 지난 시기의 linen, lawn, cotton으로부터 섬세한 silk와 lace로 전환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닥에 길게 끌린 스커트 자락을 한 손에 들고 걸을 때 보이는 레이스 프릴 장식의 컬러 페티코트와 겹옷과 마찬가지로 걸을 때마다 나는 silk 페티코트의 ‘프루 프루’ 소리는 남성들을 흥분시켰다. 페티코트 허리 앞부분은 편평하게 하였으며, 옆부분에 다트를 주고 허리 뒤에 플리스를 준 뒤, 무릎부분부터 개더를 넣고 하단에 레이스와 프릴을 넣어 페티코트가 플레이지도록 하였다.(그림 11, 右) 소재는 얇은 cambric(삼베), batiste, glacé silk, satin, moirette 등이 쓰였다. 또한 힘에는 작은 패드(pad)를 대어 S형이 되도록 하였다.(그림 11, 左<sup>41)</sup> 한편으로 실용적인 옷의 필요로 ‘tailor made’도 유행하여 화려한 스타일의 옷과 공존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였다.

<표 1> 이상미를 표현하기 위한 코르셋의 구성 방법

	크리놀린 시대	벗을 시대	S자형 시대
구성 패턴			
구성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앞에서 여미고 뒤에서 즐라멤</li> <li>▶거셋을 넣어 풍만한 가슴과 힙 표현</li> <li>▶여러 조각으로 인체에 맞게 재단</li> <li>▶Steam-moulding으로 인해 원하는 형태 유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ight-lacing의 극치</li> <li>▶수 십개의 패턴조각</li> <li>▶인체보다 작게 뜬 패턴</li> <li>▶스폰형 버스크로 복부 압박</li> <li>▶가벼워진 boning, 심한cording (string, cane)</li> <li>▶거셋, cording으로 가슴과 힙곡선 표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슴, 복부를 똑바로 하기 위해 스폰형 버스크(전시대보다 가벼워짐)로 압박하고 복부에 뼈대 댐</li> <li>▶Boning 대신 Steeling</li> </ul>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dice-Cotton</li> <li>▶뼈대-고래수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dice-신축성 있는 소재, jean, coutil, wool</li> <li>▶뼈대-고래수염, 대나무, 등나무, 소뿔, 갈대, 깃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dice-Sateen, silk jersey</li> <li>▶뼈대-Stainless steel</li> </ul>
그 외 부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 가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 가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st improver(pad)</li> <li>▶Bust bodice -mono bosom표현</li> </ul>

<표 2> 이상미를 표현하기 위한 스커트(후프, 페티코트) 구성 방법

	크리놀린 시대	벗슬 시대	S자형 시대
구성 형태			
구성 방법	▶앞중심 힙선부터 허리까지 트임이 있고 끈으로 허리를 졸라매 ▶후프는 밑단으로 갈수록 넓어짐	▶힙 뒤에 매단 후프를 안쪽에서 끈을 매달아 당겨주어 돌출시킴 ▶바스켓이란 틀을 따로 입어 힙부분을 돌출시킴 ▶스커트안에 벗슬과 후프를 매담	▶허리의 앞은 평면, 옆은 다트, 뒤는 주름으로 힙을 부풀림 ▶무릎이하는 개더, 주름으로 플레어지게 함
소재	▶watch-spring hoop ▶whale bone ▶wire	▶watch-spring hoop ▶whale bone ▶등나무 줄기	▶satin, moirette, glacé silk, batiste, cambric, lace
그 외 부자재		▶small pad ▶skirt holder를 corset 뒤허리 아래에 매달아 스커트를 부풀림	▶small pad ▶skirt supporter(skirt holder)

### V. 결론

속옷은 내적·외적으로 겉옷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 시대의 이상미를 반영하는 복식의 형태미를 나타내기 위한 기본이 됨과 동시에 내적 자아 표출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가장 밀접한 속옷의 중요성과 그 구조를 인식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남·여성의 성 역할과 유행한 복식의 큰 차이가 드러나는 분기점이 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초까지 두고, 첫째, 시대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역할 변화를 고찰한 후 둘째, 이를 바탕으로 각 시기에서 이상미에 따른 복식형태를 살펴보고 셋째, 이를 표현하기 위한 속옷의 구성방법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비교·고찰함으로써 겉옷과 속옷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속옷의 기능인 실용성, 인체의 교정과 변형, 심미성(장식성)중 이 시기의 대표적 특징인 교정과 변형에 기본을 두어 코르셋과 스커트 부풀림(크리놀린, 벗슬, 페티코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의 역할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남편에게 종속되었을 경우, 여성 복식에 대한 많은 반대 운동과 폐단에도 불구하고, 코르셋이나 유행복식이 오랜세월동안 지속되어왔다. 시기가 진행될수록 여성들의 교육증가와 고용, 스포츠, 사회적 권리, 당시 복식을 반대하는 유타주의 복식운동과 이성주의 복식운동 등은 여성들의 해방에 첫발을 내딛게 했다.

둘째, 이에 따른 이상미는 가슴과 힙을 강조하며 같은 종류로 약간의 변형을 가졌지만,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후프와 같은 고안물이 사라졌음을 볼 수 있다. 크리놀린 시대의 이상미는 에로틱한 여성형이다. 풍만한 가슴과 거대한 힙, 가는 허리의 아우워 글래스(Hourglass)형이 이상적이었다. 벗슬 시대의 모든 흥미는 스커트 뒤에 있었다. 상체는 더욱 가늘어졌고 과장되게 부풀린 힙, 벗슬 장식을 위한 넓은 뒷모습의 루벤스 타입이 이상적이었다. S자형 시대에는 전 시대의

관심의 초점이었던 힙이 가슴으로 돌아왔다. 이 때는 가슴이 성숙한 여성이 이상적인 여성으로, 앞으로 기울어진 하나의 가슴(mono-bosom)과 좁고 돌출된 하나의 힙(mono-buttock)은 S자형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셋째, 이상미에 따른 복식형태를 이루기 위한 속옷의 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코르셋의 길이와 넓이는 이상미와 겉옷의 형태에 따라 달랐다. 크리놀린 시대보다 벗슬 시대의 코르셋은 길이가 길고 타이트하며, S자형 시대에는 코르셋의 가슴위가 짧아지며 가슴에 bust improver를 대었다. 즉, 크리놀린 시대에는 바디스가 짧고 허리가 심하게 가늘지 않아 코르셋도 마찬가지로 지었고, 벗슬 시대는 긴 큐래스 바디스가 나눔에 따라 코르셋도 힙까지 길었다. 이는 스커트 넓이와도 관련이 있는데 크리놀린 시대에는 스커트 단이 넓어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게 보였지만, 벗슬 시대에는 크리놀린에 비해 스커트 단이 좁아져 가는 실루엣을 유지하기 위해 tight-lacing으로 허리를 더욱 졸라매었다. 또한 크리놀린 시대에는 Steam-moulding으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었으며, 벗슬 시대에는 인체에 더욱 밀착시키기 위해 수많은 패턴조각을 내었고 인체보다 작게 패턴을 만들었으며, S자형 시대에는 코르셋(버스크)으로 복부를 납작하게 하고 그 위에 bust bodice를 입어 하나의 가슴을 표현하였다. 소재는 크리놀린 시대에는 면에 고래뼈대를 대는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벗슬 시대에는 신축성 있는 소재로 인체에 밀착시켰고 대마, 갈대 등의 뼈대로 전 시대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S자형 시대에는 더욱 고급스러워진 실크와 신축성 있는 합성섬유로 몸의 압박을 줄였고 녹슬지 않는 강철로 뼈대를 대었으며 겉옷처럼 레이스 장식이 특징적이다.

후프와 페티코트 역시 이상미와 겉옷의 형태에 따라 달랐다. 크리놀린 시대인 1850년대에 스커트가 반원형일 때는 크리놀린도 반원형이고, 1860년대에 스커트의 뒤가 퍼진 깔대기형일 때는 크리놀린도 깔대기형이었다. 벗슬 시대인 1870년대의 긴 트레인이 달린 스타일일 때는 'half hoop'가 달린 크리놀렛이나 스커트에 후프와 패드를 매달아 뒤를 부풀렸고, 1880년대에는 힙을 90°로 돌출시킨 스타일일 때는 '벗슬(바스켓)'이란 기구를 따로 입어 힙부분을 돌출시켰다. 또한 코르셋 뒤허리 아래에 스커트 홀더(skirt holder)를 달

아 스커트 뒤를 부풀렸다. S자형시대에는 S형의 스타일을 내기 위해 페티코트 허리 앞부분은 편평하게 하고 허리 뒤에 플리츠를 준 뒤, 하단에 개더나 레이스, 프릴을 넣어 플레이지도록 하였다. 힙에는 작은 패드를 대기도 하였다. 즉, 증가하는 스포츠와 여성의 지위 향상, 실용성의 추구, 건강에 대한 요구 등으로 후프와 같은 고안물이 사라지고 코르셋 대체물이 특허를 받았으며, 드로워즈, 콤비네이션, 코르셋에 부착된 서스펜더 등 속옷의 부피가 감소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소재도 초기에 cotton, velvet, brocade와 같은 소재가 유행이라면 시기가 진행될수록 건강소재, silk, 신축성 있는 소재, 합섬과 같은 유연하고 고급스러운 소재가 인기 있었다. 이는 산업화로 인한 기술의 발전과 여성성의 사회적 위치 변화로 인해 기능성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미에 따른 복식형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속옷의 구성방법과 내적인 기능은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기의 전환점에서 여성의 해방과 의복 개혁에 대한 시도는 가는 허리, 긴 스커트, 밀착된 코르셋은 착용하고 있었지만, 시기가 진행될수록 여성 인체의 흐름선을 유연하게 표현하였고 기능성과 함께 보유했던 특성을 지니면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본 연구의 범위를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로 두어 부분적인 성공이라 표현했지만, 20세기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이 증가하고 여성 해방과 의복 개혁이 되었음은 인지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기를 여성성의 가치변화와 복식변화의 근원을 이룬 중요한 시기로 보며, 이상미를 이루기 위한 근원이 속옷의 역할에 있음을 인지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Elizabeth Rouse, 「Understanding Fashion」, (London: Blackwell Science), 1989, pp. 1-16.
- 2)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New York: Routledge), 1994, p. 103.

- 3) Donna R. Danielson, 「The Changing Figure Ideal in Fashion Illustration」, C.T.R.J., 1989, (8), #1, p. 36.
- 4) Elizabeth Rouge, op. cit., pp. 109-110.
- 5) Catherine B. Burroughs & Jefferey David Ehrenreich, 「Reading the Social Body」, (Iowa: University of Iowa Press), 1993, pp. 135-141.
- 6) Elizabeth Rouse, op. cit., pp. 107-123.
- 7) Gertrud Lehnert, 「FASHION」, (London: Laurence King), 1998, p. 113.
- 8) Christopher Breward, 「The Culture of Fashion」, (New York: Manchester University, 1995) pp. 146-148.
- 9) Jennifer Craik, op. cit., p. 121.
- 10) Ruth P. Rubinstein, 「Dress Code」, (USA: Westview Press), 1995, p. 18.
- 11) Lynn Schnurnberger, 「Let There Be Clothes」, (New York: Workman, 1991) pp. 274-275.
- 12)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New York: Thames & Hudson), 1995, pp. 180-183.
- 13) Elizabeth Ewing, 「Dress & Undress」, (London: B.T.Batsford Ltd), 1978, p. 103.
- 14) Gisèle D'assailly, 「Age of Elegance」, (HACHETTE), p. 194.
- 15) R. Broby-Johansen, 「Body & Clothes」, (New York: Reinhold Book Co.), 1968, pp. 197-198.
- 16) Farrell-Back, J., Poresky, L., Paff, J., Moon, C., 「Brassieres and Women's Health from 1863 to 1940」, C.T.R.J., (1998), 16(3), p. 105.
- 17) C.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The History of Underclothe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92, p. 185.
- 18) Elizabeth Rouge, op. cit., pp. 131-135.
- 19)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ew York: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131.
- 20) R.Broaby-Johansen, op. cit., p. 199.
- 21) Anne Hollander, op. cit., pp. 151-152.
- 22) Koichi Tsukamoto, 「The Undercover Story」, (New York: FIT), 1982, p. 6.
- 23) Christopher Page, 「Foundations of Fashion」, (Leicester: Leicestershire Museums), 1981, pp. iv-v.
- 24) Gilles Néret, 「1000 Dessous, A History of Lingerie」, 1988, (Köln; TASCHEN), p. 7.
- 25) Jennifer Craik, op. cit., p. 125.
- 26) Nancy Bradfield, 「Costume in Detail」, (Boston: PLAYS Inc.), 1983, p. 249.
- 27) Alison Gernsheim, 「Victorian & Edwardian Fashion」, (New York: Dover Publication), 1981, op. cit., p. 27.
- 28) James Laver, op. cit., p. 184.
- 29) Elizabeth Ewing, op. cit., p. 69.
- 30) Béatrice Fontanel, 「Support & Seduction」, (New York: Harry N.Abrams), 1997, p. 63.
- 31) Caroline Cox, 「Lingerie」, (Boston, PERIPLUS), 2000, pp. 22-25.
- 32) Alison Gernsheim, op. cit., pp. 70-72.
- 33) R.L.SHEP, 「CORSETS: A Visual History」, (CA: R.L.Shep Mendocino), p. 6.
- 34) C.Willett and Phillis Cunnington, op. cit., p. 179.
- 35) Christopher Page, op. cit., pp. 9-10.
- 36) Robert Doyle, 「Wasted Efforts」, Toronto: Sartorial Press Publications, 1997, pp. 141-142.
- 37) Béatrice Fontanel, op. cit., pp. 66-69.
- 38) Elizabeth Ewing, op. cit., pp. 101-103.
- 39) Nancy Bradfield, op. cit., pp. 233-234.
- 40) James Laver, op. cit., p. 198.
- 41) Nancy Bradfield, op. cit., p. 310.